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12:1-10)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가시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에 의해 보내진 육체적 고통거리였다. 바울이 평생 믿음을 지키며 위대한 사도로 산 것이, 이 가시와 무관하지 않다. 바울이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고통을 주는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자, 가시가 믿음의 삶과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며 살게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가시를 보내신다. 바울에게 있는 가시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첫째,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고후12:9 상)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가시를 만나 고통이 극심할 때, 하나님이 충분하게 나를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쉽다. 이런 생각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기 쉬운 우리에게, 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가시의 겉모습은 고통스러움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

둘째,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한다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약하게 한다. 굶주리고 박해 받게 하여 기죽게 하고, 자신감 없는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이 가시를 보내 사랑하는 자녀를 약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약하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깨달을 때 가시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핸디캡이 아니라,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간다. 바울의 일생은 약하지만 강하게 살았고, 예수님 안에서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였다. 빌3:8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셋째, 자만하지 않게 하는 제동장치

바울은 자신을 성도들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며(엡3:8), 죄인 중에 괴수(딤후1:15)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삼층천까지 다녀온 체험과 계시까지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 또한 자만해질 수 있는 인간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자만해지지 않을 제동장치로 가시를 보내셨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는 자만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없이 사는 인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제동장치라는 것이다. 벧전5:5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만해지지 않도록 건강, 자녀, 배우자 등 다양한 가시를 보내신다.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12:1-10)

1. 마음으로 만나기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경배와 찬양(Worship) 찬송가321장(통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1절)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2절)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 말씀 나누기 (Word) : 고후12:1-10 말씀을 읽고 셀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

1)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를 힘들게 했던 가시가 있었는데, 바울은 가시를 누가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 바울은 가시를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3) 바울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는, 성도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가시를 나누고, 그것이 나의 신앙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나눠보세요.

5) 이번 주 설교를 듣고 자신이 적용할 것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4.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Work of Prayer)

1) 참석한 셀원들의 기도제목 나누기

2)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 락다운 기간동안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 담임목사님과 중직자, 셀리더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

- 큐티세미나를 통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